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한 PBL 문화 Tandem 수업 운영에 관하여*

한희창**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및 논의 |
| 2. 이론적 배경 |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 3. 수업모형설계 및 운영 | 6. 결론 |

【초록】

본 연구에서는 PBL 학습법과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PBL 문화 Tandem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Tandem 학습법은 글로벌 협업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모형이고, PBL 학습법은 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 적응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BL 한중 문화 Tandem 수업을 총 3 차례 운영하면서 매 수업 모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운영결과 본 수업모형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후 무임승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수행 역량이 부족한 팀원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갈등 상황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키워드】 PBL, 탄뎀학습,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 이 논문은 2022년 한양대학교(ERICA)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202200000001596)
논문 중 일부 내용은 한국외국어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제1회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소개하였음.

** 한희창,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lizi2002@hanyang.ac.kr)

1. 서론

글로벌 역량 증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파견유학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 또는 기타 해외에 직접 가서 겪는 체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회는 여건이 허락되는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도 본인의 자발적 노력이 없다면 현지인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현지 문화에 대해 충분히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해외 유학 중인 한국학생이나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인 숙제는 ‘어떻게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를 심도 있게 체험하는가’에 있다.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증진의 어려움은 비단 자국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H 대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학생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들은 캠퍼스 내에 수많은 한국학생들이 있지만, 그들과 소통하며 친분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글로벌 협업을 통해 상호문화 역량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으로서 Tandem 수업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PBL수업과 결합하여 PBL 문화 Tandem 수업을 설계 운영하고 그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Tandem학습법과 글로벌 소통 능력

Tandem 학습법은 198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외국어 학습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

후 다양한 외국어에 적용되어 활용되어져 왔다. Tandem이란 ‘세로로 연결된’이라는 의미로 풀이 가능하며, ‘두필이 말이 세로로 끄는 마차’, ‘2인승 자전거’ 또는 ‘협력하여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Tandem 학습이란 함께 협력하여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두 종류의 상이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어 학습자가 한 팀을 이루어 상호 균등하게 협력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목표어를 배움과 동시에 파트너가 자신의 모국어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국어 학습방법이다.¹⁾ 따라서 언어 및 문화적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서로의 외국어 학습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표어 역량을 증진시키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Tandem학습법을 적용한 연구는 Tandem학습법이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었던 독일어 교육이 포함된 연구가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 문화교육과 결합된 문화 Tandem 연구는 국내의 경우 소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정도라 할 수 있다.

김미승(2011)은 당시 매우 강조되던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상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Tandem학습법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면서 Tandem 수업을 통하여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을 체험하고, 이로써 상호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배고운(2014)은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Tandem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 운영방식과 학습자들의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이효영·한희창 : 2021 재인용)

또한 Tandem학습법을 활용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및 타문화 이해능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도 있는데, 진광호 외 2인(2015)에서는 Tandem수업 경험이 학습자들의 중국문화 인식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학습자들이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접촉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흥미와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²⁾

한편 하수권(2018)은 오늘날 대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상호문화 역량을 언급하였으며, 이것이 Tandem학습을 통해 증진가능하며,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것이 상호문화 역량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보고하였다.

Tandem학습의 이론적 근거로 언급되는 상호문화교육이란 “모든 학생이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타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다.³⁾

1) 진광호(2010:32 참조) 하수권(1999:93 참조)

2) 진광호·하수권·이효영(2015 참조)

국제화, 다변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상호문화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며, 이 같은 역량을 학습하도록 하는 상호문화교육은 외국어 및 지역학을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은 1970년대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의 경우 이민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으로 출발하여 상호문화교육으로 전환되었고(70년대 후반), 이론화를 거치면서(80년대), 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산(90년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Fantini& Tirmizi(2006:12)는 상호문화역량을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의 종합’으로 규정하고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기술(Skills), 인식(Awareness) 등 4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Fantini&Tirmizi는 모든 사람이 모국어와 자문화 체계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문화적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다른 문화와 소통할 경우 새로운 관점을 인식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호문화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⁵⁾

2023년 국내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성인 남녀 응답자의 80.4%에 달했고, 전체응답자의 76.7%가 곧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사회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통합을 위한 관련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대학의 2023년 유학생 수는 약 2000명에 달하며 다음해에는 중국학생의 수만 2000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현상은 비단 특정 대학만의 상황이 아니다. 또한 학내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많은 전공들이 외국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 운영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팀플이 있는 수업의 경우 한국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학에서 국적이 다른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는 활동으로는 언어교환, Tandem학습, 그리고 Buddy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언어교환은 상호간에 언어적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모형으로서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지도능력을 요한다. Buddy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유학생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으로 학교마다 저마다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어학적 목

3) 장한업(2014: 138-139 참조) 이효영·한희창(2021:158 인용)

4) 이효영·한희창(2021:160-161 참조)

5) 이효영·한희창(2021:162 참조)

표가 전면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학생들의 선택에는 언어 학습에 대한 목표가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은 이 활동에 대해 딱히 도와줄 일이 생기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고, 규정에 따라 만나는 경우에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Tandem학습은 학습 모형이자 수업모형이기에 언어교환에 비해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교사의 주도하에 학습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외국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길었던 코로나 정체가 풀리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는데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내국인 학생규모는 줄고 외국인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 대학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최전방에서 맞이하는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외국어 학습만이 목표였던 시절과는 달리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우리사회의 외국인들과 성숙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인 글로벌 소통 역량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PBL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

Hmelo&Evensen(2000)은 21세기형 인재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⁶⁾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톰 피터스는 『인재』라는 저술에서 ‘슈퍼 인재의 아홉 가지 조건’⁷⁾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1세기형 인재에 대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양영종 외(2009)는 21세기는 디지털시대이기에 모든 것이 과거의 시대와는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분명하게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1세기에 대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시대’이고,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시대’이며, ‘자기 책임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는 시대’이고, ‘정보가 많아 오히려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현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이러한 현시대를 잘 이해하고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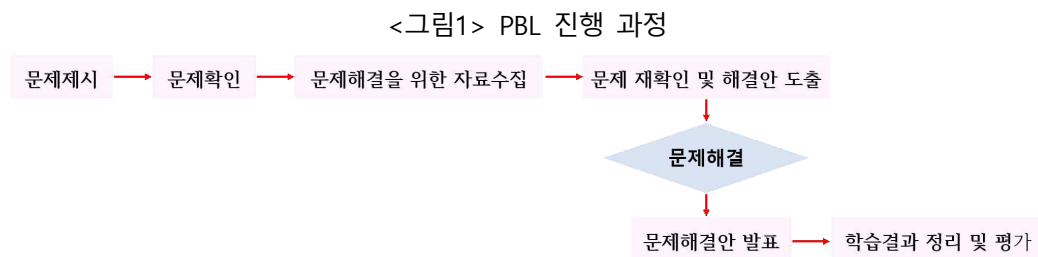
6) 양영종 외(2009:59 참조)

7) 1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 / 2 열정을 만드는 능력 / 3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 / 4 압박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5 실행하는 능력 / 6 마무리하는 능력 / 7 감탄할 수 있는 능력 / 8 호기심을 유지하는 능력 / 9 위트를 만드는 능력

대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PBL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PBL(Problem Based Learning)은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⁸⁾ 문제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은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방식이지만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문제와 PBL에서 활용하는 문제에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습할 개념이나 원리를 소개한 다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가 주어지지만 PBL에서는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가 제시된다.⁹⁾

PBL의 형태와 절차는 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목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된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는 문제제시, 문제 확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문제해결안 발표,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의 6단계로 진행된다.



PBL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이다. PBL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강의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 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문제해결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자나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가 된다. 따라서 PBL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전통적인 강의실 수업과는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¹⁰⁾

PBL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모형이라는 점이 Tandem 학습법과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 학습역량이 필요하고, 학습의 개별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 교수자가 학습의 진행자 또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PBL은 문제제시로부터 학습이 시작된다는 점과 다양한 학습 영역 모두에

8) 최정임·장경원 (2010 재인용 Barrows&Myers, 1993)

9) 최정임·장경원 (2015)

10) 최정임·장경원(2010:15-17 인용 및 참조)

적용 가능¹¹⁾한 형태라는 점이 Tandem 학습법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두 가지 핵심역량인 문제해결능력과 글로벌 소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며, 이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학습모형인 Tandem 학습법과 PBL 학습모형을 결합한 PBL 문화 Tandem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학 전공의 핵심교과인 ‘한중문화비교’ 교과에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3. 수업모형설계 및 운영

1) 학습자 구성

본 연구에서는 Tandem학습법과 PBL수업 모형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며, 해당 교과는 한중문화비교 교과로서 각각 수업 모형을 조금씩 달리하여 총 3번 운영하였다.

본 수업모형을 설계하고 준비하던 초기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시기여서 처음 시도한 형태인 수업모형 A는 표면적인 형태만 고려하면 PBL 모형만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교과의 정식 수강생들은 한국학생이었다. 당시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중국 현지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에 중국 모 대학 학생들 중 신청을 받아 본 수업에 참여하여 교류하는 것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그들은 한국학생들이 본 교과에서 제시한 PBL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조사에 도움을 주거나 한국학생들이 조사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 검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을 진행하도록 운영하였으며, 중국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참여한 중국학생들 중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해당 교과가 중국학과 4학년 전공 교과여서 필요한 소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 모형을 설계하였다. 참여 학생은 한국학생 15명, 중국학생 8명이었으며, 팀 구성은 한국학생 3-4명, 중국학생 2명을 한팀으로 구성하였다.

수업모형B는 수업모형A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의견과 교수자의 성찰 및 분석을 바

11) Tandem 학습법은 언어학습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언어의 모국어화자가 팀을 이루어 목표어의 언어 및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탕으로 정식으로 Tandem모형을 적용한 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고, 교내 중국유학생과 한국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동시에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PBL 문화 Tandem 학습모형으로 운영하였다.

Tandem 학습모형 운영을 위한 중국학생의 수강신청은 그들의 커뮤니티에 공지한 후 따로 신청 받은 후 수강신청 종료 후 추가하는 방식으로 양국 참여자의 규모를 통제하였다. 총 한국학생 13명 중국학생 10명이 참여하였고, 팀구성은 모듈 1에서는 총 5개 팀으로, 모듈 2에서는 4개 팀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수업모형C는 수업모형B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는데, 운영방식에 있어 모듈을 1개만 운영하였고, 문제해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어 좀 더 효과적으로 글로벌 소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참여학생 규모는 한국학생 13명 중국학생 12명이 참여하였다.

<표1> 각 수업모형의 팀 구성 현황

	수업모형A		수업모형B		수업모형C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15	8	13	10	13	12
참여신분	재학생	중국현지학생	재학생	중국유학생	재학생	중국유학생
팀구성	4팀 (팀당5-6명)		5팀 → 4팀 (팀당4-6명)		4팀 (팀당6-7명)	
팀내구성	3-4명	2명	2-4명	2-3명	3-4명	3명

2) 수업모형설계

PBL 한중 문화 Tandem 수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큰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한중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이며, 다른 하나는 ‘한중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 중 한국과 중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수업 모형A, B에서는 독립적인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도록 하여 그 학습 결과를 과제로 제작하여 완성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수업 모형C에서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과 소통에 주목하였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각각의 활동에서 주어진 작은 미션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면서 양국의 언어문화에 있어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상이한지, 문화적 같음과 다름으로 영향 받는 언어적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탐색하고 공유하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였고, 별도의 과제를 제작하는 과정은 생략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생활문화 비교는 수업 모형A, B, C 모두 주어진 시나리오에 의거

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작하여 완성하도록 하였고, 한중 양국의 생활문화에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 주의할 점 등에 대해 탐구하며 소통하도록 하였다.

각 수업모형에서 제공된 구체적인 문제 상황 시나리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역할은 국제처의 학생조교로 설정하였다. 한국학생들은 중국으로 파견유학을 가는 한국학생들에게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자료집을 제작하고, 중국학생들은 한국으로 방문유학을 오는 중국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각 대상자들이 상대국가에 방문하여 생활함에 있어 문화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¹²⁾

각 팀은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였고, 자국의 문화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집된 자료의 진위를 검토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도움을 주고받도록 운영하였다.

상호 정보의 진위를 검수하는 과정은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시대에 매우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는데,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많은 정보들은 그 정보 자체가 참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미 오래전 정보여서 현재와는 다르거나, 일부지역에 국한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한중 학생들이 협력하여 자료집을 제작하면서 상호 정보를 검수해 주고 도움을 주는 과정은 보다 더 유용한 자료집을 제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집 제작기간은 총 6주였으며, 6주차에는 완성한 자료집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였고, 소개시간은 15분 정도로 제한하였다.

12) 시나리오 예시 : 나는 한양대학교(ERICA) 국제처 학생조교이다. 우리 학교 국제처에서는 학생들의 국제교류 업무의 일환으로 한국학생들의 파견교환유학과 해외학생들의 방문교환 유학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처에서는 파견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원활한 유학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학을 전공하는 나는 중화권 파견 유학과 관련한 자료집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중국 대륙으로의 유학과 관련하여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정리한 자료집을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 팀에는 몇 명의 중국인 학생조교가 함께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함께 함으로써 중국의 자료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정보의 정확성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 기간은 총 4주이고 4주차에 자료집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며, 발표시간은 15분이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1) 수업모형 비교

수업 모형 A B C는 단계적으로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수업 모형A는 PBL 문화탄뎀 수업 설계를 위한 탐색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미 PBL 교과로 운영 중인 한중문화비교 수업에 중국현지 학생들을 참여하여 한국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업 모형A 운영 당시 많은 학생들이 교내 유학중인 중국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정식으로 본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Tandem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모형B를 설계 운영하였다.

수업 모형A 운영 당시 강의계획서에 중국 현지 중국학생과의 활동이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개강 후 중국학생들과의 만남에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수업 모형B 역시 중국유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수업임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했음에도 한국학생들은 적잖이 당황해 했으며, 이는 수업 모형C에서도 관찰 가능했다.

그러나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수준은 아니었기에 수업 모형 A에 비해 소통상의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수업 모형C는 교과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업 모형B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에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때는 학습자간 충분한 라포¹³⁾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했는데, 수업 모형B 운영당시 일부 소극적인 참여자로 인한 갈등이 문제상황으로 관찰 되었기 때문이다.

PBL 학습에 있어 무임승차는 언제나 팀 내 갈등의 주된 원인이고, 이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호 정보가 부족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담당 업무를 명확히 완수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적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수업활동에 참여할 때 긴밀한 소통과 상호 이해 그리고 배려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PBL 학습에서 일부학생들의 불성실한 참여는 국적을 떠나 언제나 가장 주목해야

13)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 환자와 의사, 프
로파일러와 용의자, 협상가와 인질범, 영업자와 고객 사이에 형성되는 심리적인 신뢰감을 의미.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094>

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충분한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 상호간에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면, 실수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고, 관계가 좋아지면 활동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상호간의 다양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상호 존중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수업모형C에서는 학생들 간에 친분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하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가 가진 재능을 탐색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추가로 설계하였고, PBL모듈을 1개로 축소 배정하였다.

3가지 수업모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수업모형 비교

	수업모형A	수업모형B	수업모형C
학습 목표	한중 언어문화 이해 한중 생활문화 이해	한중 언어문화 이해 한중 생활문화 이해	한중 언어문화 이해 한중 생활문화 이해
PBL 시나리오	2 개	2 개	1 개
적용 학습법	PBL	PBL 문화 탄뎀	PBL 문화 탄뎀
학습자 역할	한국학생 : 과제수행 중국학생 : 과제수행보조	한국학생 : 과제수행 중국학생 : 과제수행	한국학생 : 과제수행 중국학생 : 과제수행
PBL 과제	언어문화비교 자료집 생활문화비교 자료집	언어문화비교 자료집 생활문화비교 자료집	생활문화비교 자료집
특이 사항	과제 수행 주체 : 한국학생 중국학생 과제 수행 보조 한국학생 관점에서 양국문화 비교 온라인 비대면 진행 양국학생 대면하여 만날 수 없었음	과제 수행 주체 : 양국학생 양국학생 관점 모두 고려한 과제 완성 대면 수업으로 진행 양국학생들은 교실에서 상호 대면하여 소통을 진행하였음	과제 수행 주체 : 양국학생 양국학생 관점 모두 고려한 과제 완성 대면 수업으로 진행 소통과정, 라포형성 중시 PBL모듈 1개로 축소 운영

2) 각 수업모형에 대한 학습자 반응

(1) 수업모형A에 대한 학습자 반응

본 연구에서는 모든 수업모형을 운영한 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본 수업모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업모형A 운영 후 참여한 한국학

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수업에서의 원어민과의 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언어문화 모듈과 생활문화 모듈 각각의 모듈에서의 견해를 따로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수업모형 A 운영에 대한 한국 학습자 의견

	모듈	N	평균	표준편차
1. 이 활동은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언어문화	10	4.50	0.527
	생활문화	12	4.58	0.669
2. 이 활동은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언어문화	10	4.10	0.738
	생활문화	12	4.42	0.793
3.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언어문화	10	4.10	0.876
	생활문화	12	4.17	0.937
4. 다른 강좌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언어문화	10	4.10	1.101
	생활문화	12	4.42	0.793
5. 이 활동이 포함된 교과목이 있다면 나는 수강 신청을 할 것이다.	언어문화	10	3.80	0.919
	생활문화	12	4.33	1.155
평균	언어문화	10	4.12	0.668
	생활문화	12	4.38	0.711
	종합	22	4.26	0.688

두 종류의 학습모듈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언어 학습 부분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교사의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생활문화부분의 과제 수행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중국인과의 활동이 있는 수업을 원한다는 의견은 생활문화파트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술형으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였는데,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그 동안 인터넷의 정보에만 의존했었는데, 인터넷 상에 틀린 정보나 오래된 정보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중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중국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만 중국어를 활용한 소통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언급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자신의 중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웠거나 소통을 일부학생들이 전담해야하는 상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주로 언급된 부정적 견해였다.

그러나 대체로 학생들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함에 있어 중국학생들을 통해 자료를 탐색이나 정보의 진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의견을 주었고, 교내에 있는 유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소통의 벽을 낮추고 만날 수 있

는 기회도 좀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수업모형B에 대한 학습자 반응

수업모형A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한 수업모형 B의 운영은 양국학습자들이 실제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중국학생들이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PBL 문화 Tandem 수업을 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모형B의 전체 활동이 종료된 후 한중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PBL 문화 Tandem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으며,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 수업모형B 운영에 대한 학습자 의견

	국적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1. 중(한)국인과의 탄뎀 활동은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한국	10	4.50	0.850	0.327	0.748
	중국	8	4.63	0.744		
2. 중(한)국인과의 탄뎀 활동은 나의 중(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	10	3.90	1.287	1.625	0.129
	중국	8	4.63	0.518		
3. 중(한)국인과의 탄뎀 활동은 중(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	10	4.40	0.966	1.010	0.330
	중국	8	4.75	0.463		
4. 나는 이후에도 해당 중(한)국인친구들과 교류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한국	10	4.00	1.054	2.020	0.065
	중국	8	4.75	0.463		
5. 나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탄뎀 수업에 또 참여하고 싶다.	한국	10	4.20	1.033	1.392	0.183
	중국	8	4.75	0.463		
6. 나는 후배 및 동료에게 탄뎀수업의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	한국	10	4.30	1.160	1.484	0.166
	중국	8	4.88	0.354		
7. 외국인과의 탄뎀활동이 포함된 교과목이 있다면 나는 수강 신청을 할 것이다.	한국	10	3.80	1.229	2.633	0.024
	중국	8	4.88	0.354		
평균	한국	10	4.16	0.8504	1.988	0.069
	중국	8	4.75	0.3642		
	종합	18	4.42	0.7276		

척도 형으로 묻는 7개 문항 응답 평균은 4.42로 수업모형A에서의 두 종류 모듈 모두에서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국학생의 응답만 놓고 보면 4.16으로 1차년도 언어문화 모듈 응답보다 높고, 생활문화 모듈 응답보다 낮다.

수업모형B의 경우, 중국학생도 설문에 참여했는데,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향후 이 같은 유형의 다른 교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이 한국학생들의 응답보다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학생들은 한국에 유학 온 지 몇 년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만 진행되어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늘 힘들었다가 이렇게 수업시간에 중국어를 써도 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한국학생들은 중국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일부 중국학생들의 불성실한 참여로 인해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는 운영 중 교사가 익히 관찰 가능한 부분이었다.

(3) 수업모형C에 대한 학습자 반응

수업모형C에서는 PBL과제의 수를 줄이고 활동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역량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면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상호 친분이 형성되고 배려와 존중이 형성되면 상호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모형C의 운영 후 진행한 학습자 의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수업모형C 운영에 대한 학습자 의견

	국적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1. 중(한)국인과의 탄뎀 활동은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한국	9	5.00	.000	a ¹⁴⁾	
	중국	12	5.00	.000		
2. 중(한)국인과의 탄뎀 활동은 나의 중(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	9	4.67	0.500	-1.342	0.164
	중국	12	4.92	0.289		
3. 중(한)국인과의 탄뎀 활동은 중(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	9	5.00	.000	a	
	중국	12	5.00	.000		
4. 나는 이후에도 해당 중(한)국인친구들과 교류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한국	9	4.89	0.333	-1.165	0.258
	중국	12	5.00	.000		
5. 나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탄뎀 수업에 또 참여하고 싶다.	한국	9	4.44	0.882	-2.202	0.095
	중국	12	5.00	.000		
6. 나는 후배 및 동료에게 탄뎀수업의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	한국	9	4.67	0.707	-1.648	0.116
	중국	12	5.00	.000		
7. 외국인과의 탄뎀활동이 포함된 교과목이 있다면 나는 수강 신청을 할 것이다.	한국	9	4.44	0.882	-2.202	0.095
	중국	12	5.00	0.000		
평균	한국	9	4.73	0.661		
	중국	12	4.99	0.058		
	종합	18	4.85	0.360		

척도 형으로 묻는 7개 문항에 대한 응답 종합 평균은 4.8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학생은 4.73, 중국학생은 4.99로 양국학생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국학생들의 만족도는 수업모형B의 운영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었지만, 수업모형C의 경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학생의 만족도가 수업모형B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학생들의 한국어실력이 전 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들 간의 충분한 친분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중국학생들의 유학생생활이 정상화 되었고, 이 같은 학습 환경은 중국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긍정적 작용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수업모형C에 참여한 중국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수업모형B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학생들 간의 충분한 친분형성인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업모형C 역시 매팀마다 한국어 실력이 매우 부진한 중국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적을 떠나 매 팀 마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전 수업에서라면 소통의 어려움이나 무임승차로 인한 갈등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달라진 점은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앞서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언어적 소통이 아주 원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상호 소통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가 지닌 다양한 역량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외국어 실력이 부진하거나 또는 과제 수행관련 전공역량이 다고 부족한 것이 과제 수행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친구가 생겼다는 것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수업 외 시간에도 상호 연락하면서 친밀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PBL 문화 Tandem수업은 그 모형만으로 볼 때 문화비교 교과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만한 수업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는 앞선 PBL 문화 Tandem 모형의 운영을 통

14) a. 두 집단의 표준편차가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해 다음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 학습목표에 대한 재정비
2. PBL과제 수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
3. 수업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
4. 학생들의 과제 수행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 개발
5. 학생들 간의 상호 친분 형성

먼저 PBL활동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간 갈등에 대한 대치이다. PBL활동에서는 각 수업이 설정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PBL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무수한 갈등을 직면하게 된다. PBL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교과목 자체가 설정하는 학습 목표만이 아니라 PBL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갈등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와 문제해결 전략을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의 학습목표에는 이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학습자에게 학습초기 이 같은 학습목표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는 PBL과제 수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PBL교과에서는 상이한 언어문화권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류함에 있어 설령 외국어로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외국어 실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PBL 학습의 특성상 학생들은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협력하면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소통에 나서고, 다른 학생들은 그 외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즉 교사는 PBL수업에서의 ‘과제 수행’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교과목은 한국에서 개설된 비외국어 전용강좌이기에 한국학생들이 중국어를 사용하여 중국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학생들이 한국어를 활용해서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중국어 소통이 보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의 기본 소통 언어가 한국어임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규칙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구성원들이 팀 활동을 함에 있어 주어진 규칙에 따르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과제 수행과정에 대해 스스로도 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BL학습에 있어 ‘평가’를 내세워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통제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업 중에는 불성실한 학생들이 분명 존재하고, 놀랍게

도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며, 그 정도면 충분했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나름의 최선’이 ‘절대적 최선’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성실한 참여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가 단순히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치부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과제 수행과정에 대해 교사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팀원평가 척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시로 과제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너무 과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부감을 갖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간에 친분형성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Tandem 모형은 국적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수업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학생들만 참여하는 교양 수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수업이 시작된 후 상호간에 친분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교과와 관련된 게임을 하거나 함께 수행하는 가벼운 과제들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여 상호간에 교류하며 친분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PBL수업 운영의 성패는 학생들이 팀 안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즐겁게 과제를 수행하는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팀 내 갈등이 있었다면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 성과는 반감될 것이고, 완성된 과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즐거우면 PBL수업이 추구하는 학습 성과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이상으로 한중문화비교 전공 교과에서 PBL 문화 Tandem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해보았고, 이에 대해 이론적 근거, 수업 설계 및 운영방식, 운영결과에 대해 탐색하였고 해당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을 효과적인 운영하기 위해 주의할 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문화비교’ 수업을 대상으로 본 수업모형을 설계하여 운영하였는데, 한국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지만, 본 교과에 참여한 중국학생의 만족도가 특히

나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ndem학습법을 활용한 PBL수업인 한중문화비교 또는 다문화비교 교과는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한국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십분 발휘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외국문화를 배우고 자국문화를 돌아보며 국적을 초월하여 다양한 성향과 문화를 가진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로써 학생들에게 오늘날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협업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인애, 『PBL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2003
수지보스·존 라머, 장밝은 옮김, 『프로젝트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2』, 지식프레임, 2020.
양영중·윤호숙·임지향, 『21세기 인재되기과 PBL학습』, 한경사, 2009.
존 라머·존 머젠달러·수지보스, 최선경 외 2인 옮김, 『프로젝트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식프레임, 2017.
정문성,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고학사, 2004.
최정임·장경원, 『PBL로 수업하기』(2판), 학지사, 2015.
Brammerts Helmut·Kleppin Karin, 하수권 역, 『Tandem학습법 - Tandem Language Learning지침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논문>

- 김미승, 「교양수업에서 문화간 Tandem 소통으로 상호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방안」, 『독일어문학』, 제91집, 2020.
_____, 「Tandem학습에서 이문화 간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능」, 『독어교육』, 50, 2011.
김현진, 「Tandem 학습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24권 1호, 2013.
양춘기, 「플립 러닝 방식을 접목한 중국어-한국어 Tandem 수업모형 제안」, 『중국어학』, 57집, 2016.
이길연, 「Tandem학습법을 적용한 중국어 학습자의 Tandem학습능력에 관한 연구 - 학습자 변인을 중심으로」, 『중국어학』, 제39집, 대한중국어학회, 2011.
이효영·한희창, 「상호문화역량 교육을 위한 한중Tandem수업사례와 효과」, 『中國文學研究』,

제83집, 2021.

진광호,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중국학』, 제36권, 대한중국학회, 2010.

진광호·하수권·이효영, 「Tandem 수업이 한국인 대학생의 중국 문화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외국학연구』, 제34권,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5.

하수권, 「Tandem소통을 통한 문화 간 소통역량 교육」, 『독어교육』, 72, 2018.

황설운, 「Tandem 학습을 통한 한·중 상호문화 교육 사례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13권 2호, 201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PBL, 串联学习, 自主学习, 问题解决技能, 全球交流技能				
	영문	PBL, Tandem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Problem-solving skills, Global communication skills				
<div>Regarding the Operation of PBL Cultural Tandem Classes to Promote Global Competency</div> <div>Han Hee-Chang</div> <p>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operated classes that applied the PBL learning method and Tandem learning method and examined their effects and problems. Tandem learning method is a learning model that can improve global collaboration ability, and PBL learning method is a learning method that can improve problem-solving ability and social adaptation ability.</p> <p>Global collabora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can be said to be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of human resources in this era.</p> <p>Accordingly, in this study, we designed an PBL Korean-Chinese cultural tandem class, observed and improved problems through a total of three operations, and designed a class model that enables effective learning.</p> <p>As a result of the operation, it was found that in this class model, it is most important to be able to form friendly relationships among students because students from different cultures must cooperate to perform tasks. After a friendly relationship was formed, free riding was relatively reduced, and it was observed that team members were also considerate of less competent team members.</p>						
저 자	한희창 / 韓希昌 / Han Hee-Cha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4.02.09.	심 사 일	2024.03.09.	게재확정일	2024.03.18.